

##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기계시스템공학과	학 번	201**126	성 명	김 대 현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예나응용과학대학교	파견학기	4학년 1학기
소요경비	왕복 비행기 값 110만원 (귀국편 2회 변경 35만원 포함), 기숙사 비 월 30만원 (인터넷 비 포함) 및 학생증 발급 비용, 비자 발급 비용, 여행 경비, 식비, 라디오 통신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7개월간 총 700만원 가량을 소비하였습니다.				
주거	기숙사에서 거주하였으며 기숙사는 우리나라의 원룸과 비슷한 형태로 주방, 욕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각자 개인 방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룸메이트	기숙사마다 거주 형태, 거주 인원이 다릅니다. 저희 기숙사는 6인실로 남자3, 여자3명 이 플랫폼메이트로 살았습니다. 제 기숙사에는 플랫폼메이트로 독일친구가 3명, 헝가리 1 명, 프랑스 1명으로 모두들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제 기숙사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위치에 있어 한국인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기숙사에는 중앙대 1명, 전남대 1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예나응용과학대학교는 학사 및 석사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학사 24개, 석사 20개) 주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Engineering Sciences, Business Management, Social Science 가 있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예나대학교 국제교류부서에는 Schaef씨 께서 담당하고 계셨는데, 대다수의 독일인들과 는 다르게 활짝 웃으며 일처리도 빠르게 해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매주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탄뎜 이라는 언어교환 학습을 했습니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독일인 친구와 서로서로 독일어-한국어를 가르쳐 주며 같이 요 리도 해먹었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예나대학교의 국제교류부서에서 한국인 유학생 멘토를 소개시켜 주어서 예나에서 생활 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지등록, 은행 계좌 개설, 비자 발급, 보험 등록 등을 도와주었습 니다.				
전공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이 많이 없었기에 관심이 있는 과목들을 찾아 본 후 Scientific Instrument 학과로 선택하였습니다. 전공 과목 3, 비즈니스 영어회화 1, 독일어 1 총 5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수업 스케줄	수업은 주 마다 시간대가 달랐으며 전공 과목은 4~9학점, 영어회화 3학점, 독일어 3학 점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또는 강의 시간이 종종 바뀌었는데 교환학생들 에게는 이러한 변경 사				

	항 전달 메일이 오지 않아 수업에 가끔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학생증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고 학생 식당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 여행 시 ISIC 카드 대응으로 학생신분을 인정 받을 수도 있어 미술관, 박물관 등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증 발급 비용은 25만원 정도로 한 학기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ISIC카드 활용	독일 뿐만 아니라 기타 유럽 국가 여행 시 ISIC 국제 학생증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 현금 인출 시 수수료도 가장 적게 들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공부	한국에서 해왔던 영어 공부와 실제 회화에서의 영어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멘토가 없었던 상황이라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었는데 이 때 처음으로 어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하던 영어 공부와는 다르게 외국 친구들을 사귀며 대화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여행	학교 휴일 기간과 종강 후에는 스페인, 체코, 오스트리아 등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 생각지 못한 상황에 맞닥들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낯선 이에겐 큰 도움을 받기도 하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교통	예나 시내와 학교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도보로 20분 거리에 시내가 위치하였고, 학교 바로 앞에서 시내까지 가는 버스가 빈번히 있어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날씨	날씨나 기온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름에 한국은 덥고 습한데 비해 독일은 건조한편이며, 한참 덥다가도 다음날 갑자기 서늘해지기도 하고 하늘이 짙어다가 갑자기 비가 올 때도 있어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외인턴	해당되지 않음
추신	해외를 학생 신분으로 가 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질문도 많이 하였고 교수님은 틀린 답변을 하더라도 끝까지 학생의 답변을 들어주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업시간 중에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저 마저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만들어 주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보완점	아직까지 예나 라는 도시와 예나응용과학대학교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혼자 힘으로는 직접 부딪혀 보지 않는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파견국가와 우리 학교의 국제교류원 간에, 혹은 이전 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 간 학생들로부터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새로 오는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